

동물형상을 통한 무의식의 표출과 현대적 시각으로서의 토템의식

이 태 호(미술평론가, 익산문화재단 정책연구실장)

일상(日常), 그 너머의 낯선 상상력과 조우(遭遇)하다.

조각가 김성수는 그의 첫 번째 개인전인 이번 <제 자리에, On your Mark>展에서 갈라파고스 육지 거북, 대왕 아르마딜로, 고양이, 돌고래 등 주로 다양한 ‘동물형상’들을 통하여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작품의 주요 소재가 되고 있는 동물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거나 혹은 일상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접하고 있는 동물들이다. 하지만 이런 낯익은 소재들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작품은 어딘지 낯설다. 평범한 현실세계의 소재는 다시금 작가의 무의식 속에서 상상의 나래가 더해져 작가는 무의식과 상상력의 세계를 사실적이면서도 몽환적으로 표현해내고 있다. 초현실주의 작품이 그랬던 것처럼, 사실적이면서도 상상적이다.¹⁾ 꿈과 무의식의 세계, 상상력의 세계를 형상화했던 초현실주의 대표적인 작가 르네 마그리트와 막스 에른스트, 살바도르 달리 등과 같은 천재적 영감을 지녔던 작가들의 공통점은 바로 현실의 실재(實在)와 그 실재를 바탕으로 한 무의식과 상상 속에서, 혹은 무감각하게 스쳐지나갈 수 있는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그 내면에 감추어진 ‘비범함’을 찾아냄으로써 현실 너머에 존재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초현실주의자들이 ‘저 너머(beyond)’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죽은 자로부터 온 ‘메시지’와 같은 초자연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현실의 경계를 넘어 우리의 무의식이나 환상적인 감각상태에서 우리의 감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김성수의 이번 개인전 <제 자리에, On your Mark>展에 등장하고 있는 작품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작가는 일종의 ‘동물 공포증’ 때문에 유년시절부터 두려워했으면서도 동경의 대상이 되었던 다양한 동물들을 소재로 지금까지 꾸준히 연작(連作)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런 소재는 바로 김성수 작품만의 외형적인 특징이 되고 있다. 하지만 김성수 작품이 다른 작품들과는 다른 독창적인 느낌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이런 외형적인 특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작가가 동물 이미지를 통해 제시하려는 다양한 ‘내적 상징성’에 기인하고 있고, 그것은 다름 아닌 ‘치유(治癒)로서 기능’과 ‘현대적인 토템(Totem)적 시각’이다.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들처럼, 김성수의 작품은 사실적인 표현성에도 불구하고 신비스러운 분위기와 고정관념을 깨는 소재와 구조, 발상의 전환 등의 특징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1)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의 영향을 받은 초현실주의가 일반적으로 사실주의나 추상예술과는 대립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보통 사실성과 함께 추상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무의식 속의 동물형상, 심리적인 치유로 전환된다.

서두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김성수 작품의 특징이 되고 있는 다양한 동물 이미지들은 작가의 유년시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동물 공포증’으로 인해 유년시절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다양한 동물들은 작가에게는 점차적으로 ‘상상의 대상이자 친구’가 되었고, 가지고 싶었지만 가질 수 없는 ‘사막의 신기루’와도 같은 존재였다고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작가가 인지하고 있든, 혹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든지 간에 그것들은 작가에게 ‘일종의 심리치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무의식 속의 동물들이 심리적인 치유의 기제로 전환되어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동물들이 이제는 동경의 대상이자 작가 상상력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우리는 김성수 작품의 외형적인 특징이나 기법적인 특징, 그리고 색채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단순하면서도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모습을 하고 있는 동물의 외형적인 특징은 이제 더 이상 작가를 괴롭히는 두려움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이 아니고 오히려 귀엽고 친근함마저 느껴진다. 기법적으로도 날카롭고 차가운 직선보다는 곡선적인 형태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김성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인 곡선은 ‘원(圓, Circle)’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만다라(曼荼羅)’와도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 ‘원(圓)’을 뜻하는 ‘만다라’는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유럽, 북미 대륙에 살았던 고대인들의 암각화에서도 발견되는 것으로서 고대로부터 인류의 삶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이자 심리학자였던 구스타브 융(Carl Gustav Jung)은 만다라를 통합적인 정신의 중심인 자아와 연관시키고 있다. 그에 의하면 만다라가 통합적인 정신의 패턴을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의 정신을 가장 자연스럽게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형태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무의식의 상징으로서 꿈속이나 상상의 세계 혹은 예술작품에서도 자연스럽게 만다라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작가 김성수에게 있어 곡선으로 이루어진 ‘원(圓, Circle)’은 단순한 의미로서의 곡선이 아니라 날카롭고 차가운 직선을 극복하는 ‘따뜻함’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아울러 어린 시절부터 줄곧 괴롭혀왔던 동물들에 대한 ‘공포감’을 극복하는 ‘심리적인 치유’로서의 의미 역시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치유로서의 자아에 대한 인식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작품에 등장하고 있는 색채들 역시 초록색 계열의 민트나 갈색 톤, 연한 베이지 색 등 파스텔 계열의 색상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현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풍선처럼 부풀려진 동물 이미지들과 함께 등장하고 있는 마을이나, 달, 구름, 비행기 같은 요소들은 마치 작가가 어린 시절부터 꿈꾸어왔던 꿈속 세계 혹은 동경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동화적이고 몽환적이다. 예를 들어 그의 작품 <달 벌레>와 <조지의 섬>, <반달곰 마을>에서는 마을과 달이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고래의 뱃속에 작가가 어린 시절부터 상상했던 마을을 담아내고 있는 대형작품 <고래의 꿈>은 이탈리아의 작가 콜로디의 1883년 동화작품인 <피노키오의 모험, Le adventure di Pinocchio>에 등장하는 피노키오의 아버지 제페토(Giuseppe Geppetto)가 피노키오를 찾아 헤매던 중 고래에게 잡아먹힌 장면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이처럼 사실적인 동물형상을 통하여 꿈과 상상력의 세계를 담아내고 있는 그의 작품들은 작가 김성수만의 무의식의 세계, 상상력의 세계를 그가 두려워했던 ‘동물형상’을 빌어서 표현한 것으로서 이것은 심리치유의 과정을 거쳐 파생된 결과물들인 것이다.

동물형상, 현대적인 시각으로서의 새로운 토템(totem)의식과 만나다.

김성수의 첫 번째 개인전인 이번 전시의 주제는 <제 자리에, On your Mark>이다. 김성수 작품의 주된 모티브가 되고 있는 동물 형상들은 어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소재로 치부해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제 자리에>라는 이번 전시의 주제를 생각해본다면 개인적인 경험과 상상력의 표출, 치유의 의미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그렇다면 작가가 동물형상을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제 자리에, On your Mark>라는 이번 전시의 주제를 음미(吟味)하면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차례이다. 우리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요셉보이스의 한 작품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1965년 한 작은 방에서 이색적인 퍼포먼스가 열렸다. 젊은 남자는 꿀과 금박을 얼굴에 바르고, 죽은 토끼를 양팔로 감싸 안았다. 펠트 구두를 신고, 구두 밑창에는 강철을 뒀다. 그 남자는 3시간이나 토끼에게 자신의 드로잉 작품에 대해 속삭였다. 이 퍼포먼스가 바로 세계적인 거장 요셉 보이스의 대표적인 퍼포먼스 작품 <죽은 토끼에게 어떻게 그림을 설명한 것인가?>의 장면들이다. 고대 원시시대의 영매(靈媒) 혹은 주술사가 그랬던 것처럼, 요셉보이스가 자신의 얼굴에 꿀과 금박을 잔뜩 바르고 죽은 토끼에게 주문을 외우듯이 자신의 작품을 설명했던 이유는 물질만능주의의 탐욕과 폭력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차가운 세계에 따뜻함을 주는 존재자로서의 행위이자 미술행위를 통해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일종의 의식(儀式)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에게 있어 토끼라는 동물은 하나의 존재 단계에서 다른 존재의 단계로 자유롭게 이동하기 위한 매개체이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다른 영역에 접근해 있는 영적(靈的)인 존재의 현세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김성수의 작품에 등장하고 있는 동물 이미지들 역시 현실세계와는 다른 무의식의 세계, 상상력의 세계에 접근하고자 하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더 나아가 동물은 자연이라는 커다란 의미의 공동체를 위한 하나의 요소들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특정 개인과 연관된 수호신이나 초자연력(超自然力)의 원천으로서의 동물, 또는 샤먼(무당)의 동물신 등과 동일시되는 토템(Totem)적인 시각과도 연결된다. 현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토템이라는 개념 역시 사회현상에 있어서 집단의 상징이나 징표로서의 동식물이나 자연물을 가리키는 것이다. 작가 김성수에게 있어 동물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은 자연과 연관을 맺고 변화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제 자리에>라는 이번 전시의 주제가 가지는 의미를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자연과 기본으로의 환원과 복귀이다. 작가는 다양한 동물형상을 통하여 그 터전이 되고 있는 자연에 대한 사유(思惟)를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따라서 김성수의 동물형상 작품은 '자연속의 공동체'를 바라보는 현대적인 시각으로서의 새로운 토템의식은 아닐까.